



# “산업동향 및 업계동향 파악용도로 적극 활용”

## 광학전문지『광학세계』에 대한 독자, 광고사들의 만족도 조사

1989년 4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한국광학기협회와 행보를 같이 해 온 『광학세계』가 2005년 11월호로 통권 제100호를 기록했다.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광학세계』는 그동안 광학분야의 전문잡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를 맞아 더욱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애독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자들이 광학세계 활용용도는 주로 산업동향 및 업계동향 파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문조사인원의 81%가 『광학세계』의 광고효과에 대해 좋은 편이거나 보통이라고 답해 대부분 독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편집부

### 전체 93% 독자들, ‘현재 내용구성 좋다’ 답변

금번 설문조사는 『광학세계』를 최근 2~3년간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개인 및 광학업체와 최근 1년부터 그 이상 꾸준히 광고 게재를 해온 광학업체 총 100여 곳(회수 47개)을 대상으로 집계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독자들은 『광학세계』의 전반적인 내용구성(표 1, 그림 1 참조)에 있어서 전체의 93%의 독자가 ‘현재대로의 구성이 좋다’고 답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학세계』의 내용(표 3, 그림 3 참조)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의 97%가 ‘현재 그대로가 좋다’ 또는 ‘보기에 무난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편집스타일에 대해서는 전체의 답변에 참여한

# 광학전문지 『광학세계』에 대한 독자, 광고사들의 만족도 조사

모든 응답자가 '현재 그대로가 좋다' 또는 '보기에 무난한 편이다' 라고 답해 편집스타일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예시 1〉을 바탕으로 현재 『광학세계』에서 즐겨보는 분야를 묻는 질문(표 2, 그림 2 참조)에 관해서 중복답변을 포함하여 전체의 27%의 독자들은 Special Issue라고 답해 대부분의 독자들이 광학산업별 시장동향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eople&Interview가 22%, Features 와 Special Thema가 각각 20%, Movement&News가 9%, 기타가 2%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학세계』의 활용 용도를 묻는 질문(표 5, 그림 5 참조)에 대해서는 중복답변을 포함해서 전체의 43%가 '업계동향 파악' 이라고 답했고, 41%가 '산업동향 파악', 16%가 '광학기술 습득' 이라고 답했다.

예시 1. 『光學世界』 편집기획 틀

분류	꼭지명	성격
Special Issue	1)기획특집	산업별 동향 취재
	2)기획취재	
	3)간담회 및 좌담회	
Features	4)세미나지상중계	각종 산업별 논문 및 기고문
	5)해외리포트	
	6)업계기고	
Special Thema	7)산업정책	이달의 이슈, 테마별 기사, 최근 기술동향
	8)광학과 기술	
	9)해외 연수기	
Information	10)특허정보	각종 정보
	11)광학통계	
	12)무역업무상식	
	13)정부지원제도	
Exhibition	14)국내 전시회 리뷰	전시회 관련 정보
	15)해외 전시회 참관기	
	16)세계 박람회 정보	
People & Interview	17)신규회원사 소개	회원사 탐방, 취재
	18)회원사 탐방	
	19)광학R&D산실	
	20)이달의 광학인	
	21)독자 초대석	
Movement & News	22)회원사 동정	각종 단신 뉴스
	23)한국광학기기협회 소식	
	24)광학 신상품	
	25)광학인포메이션	
	26)광학뉴스라인	
	27)여행이야기	
Miscellany	28)웰빙라이프	문화 및 그 외 기타 소식
	29)광협일지	
	30)회원명부	

표 1. 광학세계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

	현재대로의 구성이 좋다	변화가 필요하다
응답자	28	2
백분율	9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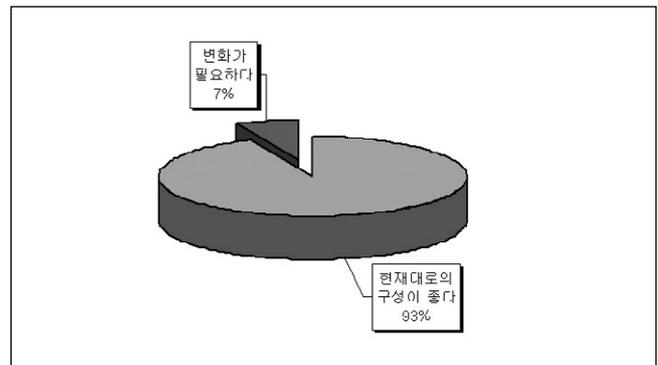


그림 1. 광학세계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

표 2. 광학세계에서 즐겨보는 분야(꼭지명)

	special issue	people & interview	Features	special thema	movement & news	기타
응답자	22	18	16	16	7	2
백분율	27%	22%	20%	20%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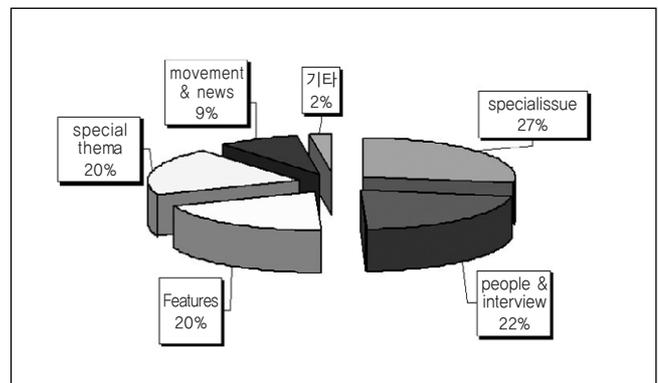


그림 2. 광학세계에서 즐겨보는 분야(꼭지명)

# 클로즈업

표 3. 광학세계의 내용

	현재 그대로가 좋다	보기에 무난한 편이다	내용이 너무 딱딱하다	너무 전문적이다	기타
응답자	27	2	0	1	0
백분율	90%	7%	0%	3%	0%

표 4. 광학세계의 편집스타일

	현재 그대로가 좋다	보기에 무난한 편이다	너무 혐오지 스타일이다	편집이 답답하다	기타 의견
응답자	5	26	0	0	0
백분율	16%	84%	0%	0%	0%

표 5. 광학세계의 활용 용도

	산업동향파악	업계동향파악	기술습득	자사 홍보	기타 의견
응답자	30	31	12	0	0
백분율	41%	42%	16%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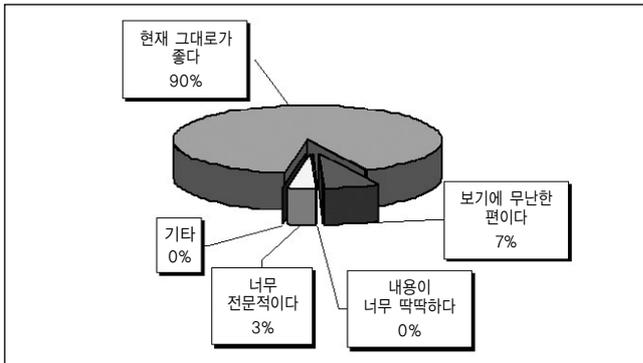


그림 3. 광학세계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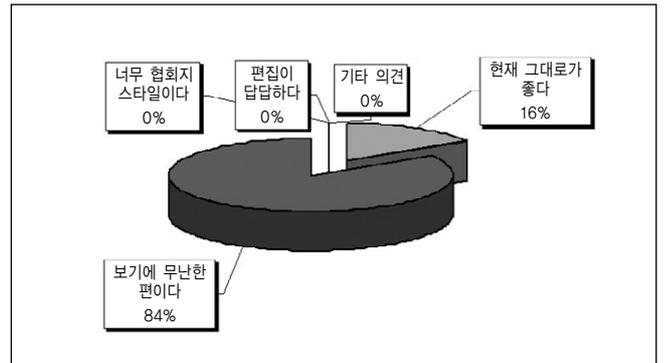


그림 4. 광학세계의 편집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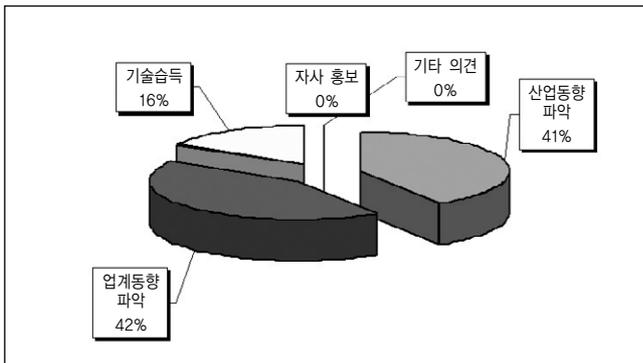


그림 5. 광학세계의 활용 용도

## 광고사 69%, '향후 광고 게재 의사 있다'

한편, 『광학세계』의 광고게재와 관련하여 광고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광학세계』의 광고효과에 대해서 묻는 질문(표 6, 그림 6 참조)에서 전체의 63%가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19%가 '좋은 편이다', 13%가 '모르겠다', 6%가 '효과 없다'라고 답해 전체의 82%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해서 기타 의견도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 한 업체관계자는 “『광학세계』가 주로 광학인들이 보는 잡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렌즈가 필요한 장비업체나 전자업체에서 『광학세계』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

했다. 또한 다른 업체관계자는 “『광학세계』가 같은 동종업계에 배포되는 것은 광고 효과면에서 가치가 없다”며 “『광학세계』가 실제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효율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업체관계자들은 “『광학

# 광학전문지 『광학세계』에 대한 독자, 광고사들의 만족도 조사

표 6. 광학세계의 광고 효과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효과 없다	모르겠다
응답자	0	3	10	1	2
백분율	0%	19%	62%	6%	13%

표 7. 광학세계의 광고 단가

	적당하다	저렴한 편이다	보통이다	단가가 비싼 편이다	매우비싸다
응답자	1	0	11	2	0
백분율	7%	0%	79%	14%	0%

표 8. 가장 광고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지면

	표지1	표지2	표지3	표지4	내지1	내지2	내지3	내지4 이상
응답자	8	0	0	5	3	0	0	0
백분율	50%	0%	0%	31%	19%	0%	0%	0%

표 9. 향후 광고게재 할 의향

	있다	없다	모르겠다
응답자	11	0	5
백분율	69%	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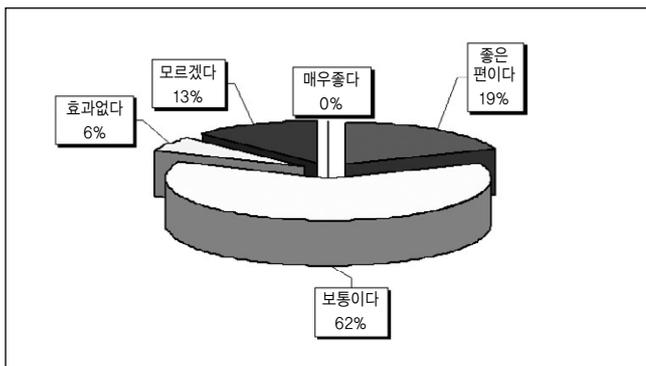


그림 6. 광학세계의 광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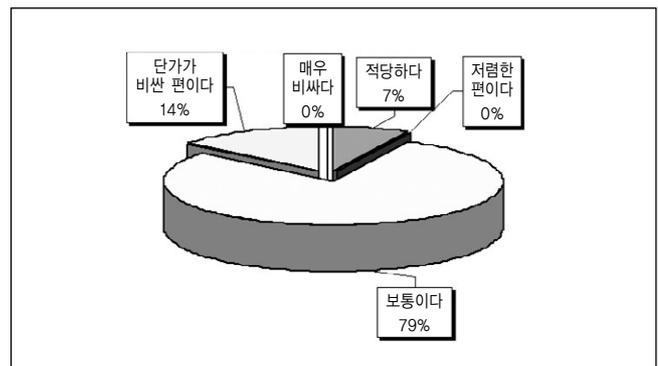


그림 7. 광학세계의 광고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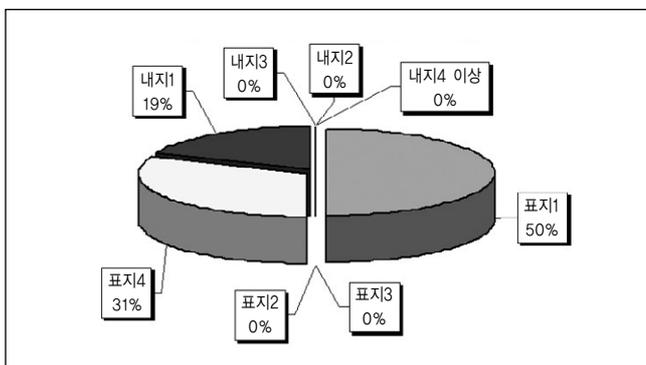


그림 8. 가장 광고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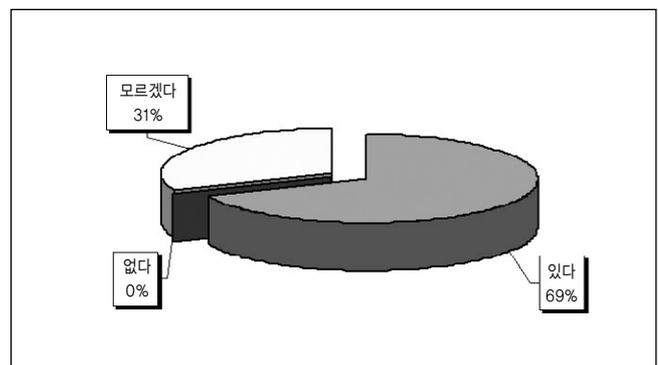


그림 9. 향후 광고게재 할 의향

표 10. 광고계재 선호지면

	표지1	표지2	표지3	표지4	내지1	내지2	내지3	내지4 이상
명수	8	0	0	5	3	0	0	0
백분율	50%	0%	0%	31%	19%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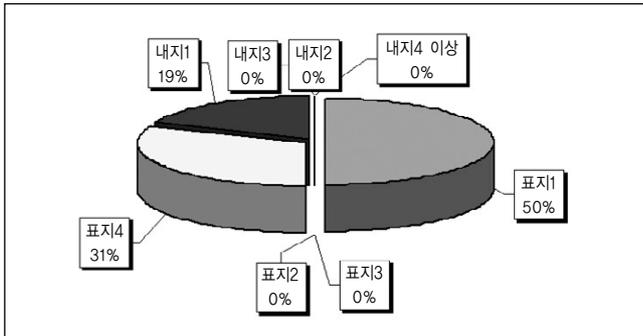


그림 10. 광고계재 선호지면

예시 2. 『광학세계』 광고단가표

지면	색도	크기	금액
표지 1	원색	5x7 국배판(전면 변형판)	1,500,000
표지 2	원색	5x7 국배판	750,000
표지 3	원색	5x7 국배판	650,000
표지 4	원색	5x7 국배판	1,200,000
내지 1	원색	5x7 국배판	850,000
내지, 간지	원색	5x7 국배판	480,000

세계』의 광고효과를 높이고 광고계재 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학세계』 배포처를 크게 확대하고 다양한 업체에 효율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학세계』의 광고단가를 묻는 질문(표 7, 그림 7 참조)에서는 전체의 79%가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단가가 비싼 편이다’가 14%, ‘적당하다’는 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8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학세계』에서 가장 광고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지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표 8, 그림 8 참조)에 대해서는 전체의 50%가 ‘표지 1’이라고 답했고, 31%가 ‘표지 4’, 19%가 ‘내지 1’이라고 답했으며, 그 외에 표지 2, 3과 내지 2이상부터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문항은 “광고업체에서 광고를 게재한다면 선호하는 지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표 10, 그림 10 참조)과도 비슷한데, 역시 광고사들의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지면과 동일하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광고계재 의향을 묻는 질문(표 9, 그림 9 참조)에 대해서는 전체의 69%가 ‘있다’라고 답한데 이어 31%가 ‘모르겠다’고 답했고 ‘없다’라고 답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광학세계』 광고계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광학세계』, 웹진 운영 및 알찬 기획과 배포처 다양화 계획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학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광고계재와 관련하여 광고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대로 금번 설문조사는 『광학세계』를 최근 2~3년간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개인 및 광학업체와 최근 1년부터 그 이상 꾸준히 광고 게재를 해온 광학업체 총 100여 곳(회수 47개)만을 한정지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광학세계』 편집부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를 맞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재무장하고 배포처를 다양화시킴과 함께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의 일환으로 2006년 1월(중순 예정)부터 한국광학기기협회 홈페이지(www.koia.or.kr)에 『광학세계』 웹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홈페이지상에서 과월호와 해당월의 『광학세계』 목차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홈페이지 상에서 PDF형식으로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된다. 『광학세계』를 웹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광학기기협회 홈페이지상에서 개인 회원등록을 마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